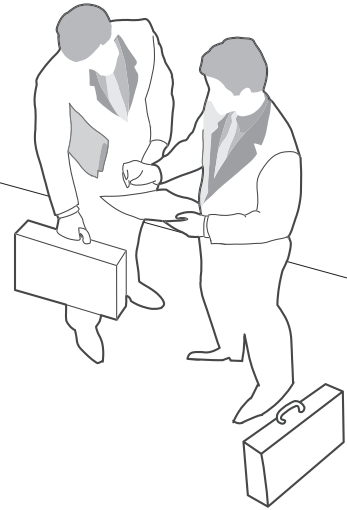


2009 IT국제표준화전문가 주요활동 결과



◎ 전문가 지원 현황

구분	관련회의	전문가 참여(명)	기고서 제출(건)	분야
ITU	WTPF	1	0	표준화정책
ITU-T	SG3 RG-AO	1	3	
	SG2	3	2	BcN
	SG12	1	0	
	FG ICT&CC	1	0	그린IT
	VCEG	2	2	DC/SW
ITU-R	WP4A/4B	3	3	방송통신융합
	WP6A/6B/6C	2	4	
IETF	IETF	8	11	BcN
IEEE	P1903	1	1	
	802.15	1	1	이동통신
3GPP	TSG SA#43	1	0	
3GPP2	Super Meeting	1	0	
APT	AWF	1	0	
	AS TAP	6	5	표준화정책
CJK	NGN WG	1	2	BcN
ETSI	TC M2M	1	1	
JTC1	MPEG	9	16	DC/SW
W3C	MWI MWBP WG	1	2	
	MA WG	1	0	
OMA	GS WG	2	2	
	PoC WG	2	2	이동통신
OGC	TC Meeting	1	1	u-컴퓨팅
CELF	RT WG	1	0	DC/SW
OASIS	UBL	1	0	
UN/CEFACT	UN/CEFACT	1	1	
계		54	59	

◎ 주요 내용

구분	표준화 회의	회의 의제	주요 쟁점 사항	국내 대응전략	참여 전문가
BcN	ITU-T SG2 (03.24~04.02 스위스 제네바)	번호/ 망관리	· SG2가 번호 분야와 망관리 분야의 통합으로 인해, 번호 분야와 망관리 분야의 융어 정의가 상이하여 Q.6(융어정의)를 WP1(번호), WP2(망 관리)에 부속시키지 않고 독립적인 Question을 두기로 합의함	· 국내에서도 유사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Cell Broadcasting 서비스는 글로벌 논의 사항을 참고하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CPDN 서비스는 국내에서도 발신자번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기술을 바탕으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임	이인섭(KT) SG2 부의장 외 2인
	IETF 제74차 (03.22~03.27 미국 샌프란 시스코)	IPv6	· 기존의 참여자들은 RFC 3775의 Mobile IPv6 기술이 활발히 쓰여지길 바라면서 해당 기술은 한정적에만 사용되길 바라는 성향을 보였으나 신진 멤버들은 더 많은 확장 기술을 부여하여 4G 이동통신에서 중요한 기술로서 자리 매김하길 바라는 성향을 보임	· 미국이 주도하던 IETF에서 최근 중국의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음. 모바일 인터넷 분야를 중심으로 약진하던 한국의 표준기술 위상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	박수홍(삼성전자) 16ng WG 부의장 외 7인
	IEEE P1903 (03.03~03.05 중국 북경)	NGN	· P2P, IMS, 웹서비스, 융합 서비스, IMS 멀티미디어 세션 연속성 서비스 등 차세대 서비스 오버레이 구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됨	· ID 관리, proximity calculation 기능, 커뮤니티 서비스 use case 및 구조, 컨텍스트 등과 관련된 기고서를 제출하였고 요구사항 및 구조, 기술규격에서 각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기술을 제시할 예정임	황진경(KT) P1903 NGSON 부의장
	CJK NGN WG (04.08~04.10 중국 장가계)		· Future Network에 대해 일본은 분배형 서비스 망을, 중국은 P2P망의 확장을 제안·금번 회의를 통해 Future Network에 관한 보다 폭넓은 3국 간의 이해가 있었으며 FN-FG 활동을 통해 계속해서 조율해 나가기로 함	· Future Network 관련하여 국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목표를 보다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표준화 추진 전략 수립 필요 · 궁극적 목표와 중기적 목표의 수립을 구분하여 중국 및 일본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함께 나가도록 하는 전략이 필요함	이재섭(HISPOT)
디지털콘텐츠/ SW	JTC1 MPEG (04.19~04.24 미국 마우이)	멀티 미디어	· MXM은 최근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AIT 개발의 기반이 되는 핵심기술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 AIT Requirement 문서 작성을 위한 Use Case 선정과 이를 위한 기존 MPEG 기술 확인이 이루어짐	· 국내서는 ETRI의 표준연구센터에서 Generic metadata API 기능에 대한 핵심 기술에 대한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MXM 표준을 주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함	장익선(한양대) SC29/WG11 RVC 의장 외 8인
	ITU-T VCEG (04.15~04.18 일본 요코하마)		· 차세대 비디오 코덱인 H.265를 위하여 기존의 H.264/MPEG-4 AVC 보다 좋은 압축효율을 보이는 여러 비디오 코딩 tool들을 바탕으로 VCEG에서 새로운 비디오 코딩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있음	· 비디오 코덱 표준에 많은 국내의 회사 및 학교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동시에 공동으로 표준화 선점을 위한 전략적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이영렬(세종대) 외 1인
	W3C MWI MWBP WG (03.25~03.27 영국 런던)	모바일웹	· 유럽을 중심으로 모바일 웹 표준화에 대한 많은 관심과 함께 적극적인 표준화를 주도하여 왔으며, 이외에도 모바일웹 애플리케이션 분야 등에 대한 모범 사례 표준 개발을 추진하고 있음	· 국내에서는 W3C 표준화에 대응되는 모바일웹과 모바일웹 애플리케이션 표준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모바일OK 시범 사업 등을 연계한 다양한 국내/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음	전종홍(ETRI)
	W3C MA WG (04.16~04.18 스페인 바르셀로나)	웹	· Video 메타데이터가 다양한 형태로 웹상에 사용되고 있으며 XMP를 중심으로 Adobe, Apple, Microsoft, Sony 등은 독자 표준으로 진행하고 있어서 향후 W3C의 표준과 상충될 우려가 있음	· 아직까지는 Video 포맷 분야에 대한 활동이 매우 미비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다양한 사업자들의 활발한 참여가 필요함 · 현재 웹 상의 Video가 IPTV에 중요한 콘텐츠로 활용될 것이므로 관련 산업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박수홍(삼성전자) MA WG 의장
	OMA GS WG (04.19~04.24 핀란드 헬싱키)	멀티 미디어 응용	· Mobile Gaming Centric Function에 제기되는 Mobile Game Framework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음	· 민감한 기술적 부분을 제외하고, 가급적 사용자 Interface 관점에서 표준화에 치중하는 모습이 필요함	정상권(엔소프트)

구분	표준화 회의	회의 의제	주요 쟁점 사항	국내 대응 전략	참여 전문가
디지털콘텐츠/ SW	OASIS UBL Plenary (04.20~04.24 이탈리아 로마)	전자거래	· UBL 내에서 논란은 없었으나 UBL과 UN/CEFACT와의 통합에 따른 OASIS와 UN/CEFACT와의 입장 차이가 있음 (UBL: UN/CEFACT보다 표준화 작업이 앞서 있어 기존의 결과를 고수하려는 입장임)	· 국내는 UN/CEFACT 중심으로 전자문서 표준화를 진행 중으로, UBL에 대한 비중은 약하나 통합의 방안이 결국은 UBL 결과를 수용하면서 UN/CEFACT 주도의 표준화를 진행할 예정임	김성혁(숙명여대) UBL KRLSC 의장
이동통신	IEEE 802.15 (03.08~03.13 캐나다 밴쿠버)	WPAN	· 실시간성을 요구하는 산업계 응용과 통신 분야 서비스 적용이 가능하도록 WPAN 15.4 성능 개선을 위한 MAC 확장 방안을 논의	· IEEE 802.15.4g의 주요 기술로 우리나라의 modulation 구조, wake-up 구조, sectored antenna 기술을 채택하도록 추진	주성순(ETRI) 802.15 4e TG 부위원장
	3GPP TSG SA#4 (03.09~03.12 프랑스 비아리츠)	4G 이동통신	· Rel-9의 Home-(e)NodeB와 3GPP 패킷접속 표준 작업 중인 Essential Rel-9 Functionality에 대한 항목을 정의하였음 · EPS 상에서 CS Domain 서비스 지원 표준작업이 가각됨	· 급변 회의에서 SA Plenary 부의장 1석(LG전자 김기영 책임)을 확보한 만큼 국내사들의 협력 및 기술교류를 통해 국제표준화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한승돈(KTF)
	3GPP2 Super Meeting (03.30~04.03 미국 뉴올리언스)		· Femto forum과 joint meeting을 통해서 표준화의 유기적인 관계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짐 · Vision document 발간에 대해서 결정하고, 그 이후의 schedule에 대한 논의함. 새로운 work item인 interworking EVDO rev.B-LTE가 승인됨	· femto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는 활성화 입장에 반해, 사업자(LG, 삼성 등)들은 관망하는 입장이나 Inter system 간의 Interworking dp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	구연상(LGT) TSG-S 부의장
	OMA PoC WG (03.17~03.19 스웨덴 스톡홀름)		· XDM server가 search 기능을 제공해 줄지 아니면 개별 enabler가 스스로 search 할 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결론은 XDM server가 search 기능을 제공해 주기로 결정함	· XDM Server가 조건에 맞는 URI list의 search 기능을 수행하게 되었음으로, Converged IP Messaging 등 OMA 내의 messaging enabler들도 이를 고려하여 규격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허강석(LG전자) PoC WG 의장
방송통신 융합	ITU-R WP4A (04.27~05.06 스위스 제네바)	HDTV	· HDTV/방송위성계획 작성과 관련하여 21.4~22.0GHz 대역을 이용하는 방송위성망에 적용되는 절차 및 기술 기준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짐(WRC-11 의제 1.13 관련)	· HDTV 위성 방송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21GHz 대역 이용과 관련된 표준화 동향을 적극 파악하여 향후 우리나라 방송위성 서비스 제공에 차질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임	박세경 (에이알테크놀로지) 외 1인
	ITU-R WP4B (04.22~04.29 스위스 제네바)	위성방송	· 하이브리드 및 통합 위성망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최종적으로 "통합 MSS 위성 시스템(Integrated MSS System)"과 "하이브리드 위성/지상 시스템(Hybrid Satellite/Terrestrial System)"으로 구분하여 정의함	· 초기 대한민국에서 제안 기고하였던 위성에서의 다중반송파 전송 방식에 관련된 작업 문서를 차기회의에서는 신규 권고 초안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추진함	김수영(전북대)
표준화정책	ITU-T SG3 RG-AO (03.04~03.06 베트남 하노이)	ITRs	·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는 NGN Charging의 경우 SG3의 NGN Charging 라포처 김철수 교수와 본 회의 라포처 최용선 교수를 중심으로 국내 SG3 분과위원회에서 향후 NGN 과금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	· 국제 전기 통신 규칙(ITRs)이 국제조약인 점을 감안하여 향후 주요 제·개정 이슈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검토하고 필요시 아시아지역의 국가들과 연합하여 우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국내 대응체계가 필요함	이병남(ETRI) SG3 RG-AO 의장
	APT ASTAP (03.08~03.12 태국 방콕)	표준화 정책	· APT 산하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난 회의에서 논의되었던 ASTAP과 SG활동을 조화롭게 연계·통합하기로 합의	· ASTAP과 SG통합 논의를 위한 AdHoc그룹 코라포처 조기 지명 및 양 그룹 국내전문가의 관련 논의 참여를 독려	문호건(KT) IRG 의장 외 5인
	ITU WTPF (04.21~04.24 포르투갈 리스본)	전기통신 정책	· 융합과 인터넷 거버넌스, NGN, 신규통신정책 및 국제통신규제의 4개 분야에 대하여 현황 및 전망을 살펴 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한 사무총장의 의견 제안서 6개를 검토 및 합의함	· 사무총장이 제시한 대부분의 제안 의견들이 국내의 정책 환경에 다르게 적용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새로운 영향을 미칠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주요 관계국들과의 협조 차원으로 폭넓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함	이재섭(HISPOT)
그린 IT	ITU-T FG ICT&CC (03.23~03.27 일본 히로시마)	기후변화	· 기후변화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일본은 예전부터 ITU-T의 SG15에서 연구하기를 원했으나 반영되지 않고 한국, 프랑스 등의 의견에 따라 향후 TSAG에서 논의하기로 함	· 기후변화 대응 연구가 향후 ITU-T TSAG회의에서 결정됨에 따라 한국인 의장/부의장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반으로 배정하는 방안 강구 필요	강성철(전파연구소) FG ICT & CC 부의장

※ 약어

1. ITRs(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Regulations)	3. AIT(Advanced IPTV Terminal)
2. VCEG(Video Coding Expert Group)	4. CPDN(Calling Party Number Delivery)

TTA



정보통신용어해설

UnderWater Acoustics Sensor Network

UnderWater Acoustics Sensor Network, UWASN [통신망]

수중에 분산 배치된 수중 센서 노드들이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인간이 필요로 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는 수중 USN 기술.

수산업, 해양업은 물론 국방과 환경 및 생태계 분야에서 활용된다.